

모범택시3는 지난달 29일 방송된 4회에서 닐슨코리아 기준 11.6%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방송 2주 만에 두 자릿수를 달성했다. 드라마 '모범택시3' 일부. SBS

시즌제 드라마 열풍… '모범택시' 흥행 질주

흥행력 있는 IP로 팬들 매료
'모범택시3' 대표적 성공사례
방송 2주차에 시청률 11.6%
tvN '시그널' 내년 시즌2 공개
탄탄한 캐릭터로 스토리 확장
OTT 충성 고객 유치 일등공신

흥행력 있는 지식재산권(IP)을 바탕으로 한 시즌제 드라마들이 방송가에서 시청자를 사로잡는 '치트키'가 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첫 방송한 배우 이제훈 주연의 SBS 드라마 '모범택시3'는 국내 시즌제 드라마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2021년부터 방영된 이 시리즈는 택시 기사 김도기(이제훈 배우)와 무지개운수 팀원들이 억울한 피해자들 대신 사이다 같은 복수 대행극을 펼치는 이야기다. 시즌1과 시즌2에서 각각 최고 시청률 16%, 21%를 기록하며 연속 안타를 쳤다.

벌써 세 번째 시즌이지만 이번에도 반응이 심상찮다. 지난달 29일 방영된 4회에서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11.6%를 기록하며 방송 2주 차 만에 시청률 두 자릿수를 넘겼다.

실제 일어났던 범죄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사건, 매 시즌 더 강력해지는 빌런(악당)을 해치우는 시원하고 통쾌한 액션, 의뢰받은 사건에 맞춘 김도기와 무지개운수 식구들의 다채로운 부캐(부가 캐릭터) 변신 등에 힘입어 탄탄한 팬층을 형성한 결과다.

주인공인 배우 이제훈은 "시즌1·2를 하면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며 "시즌3까지 만들 수 있었던 건 시청자들의 사랑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송사들이 시즌제 드라마를 선호하는 이유는 앞선 시즌을 통해 확보한 두터운 팬층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시청률이 보장되고, 흥행이 검증된 IP를 최대한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티빙



tvN '시그널'. tvN

실제 '모범택시3'의 연출을 맡은 강보승 감독은 제작발표회 당시 "모범택시는 시즌10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메가 IP"라며 "세계관이 탄탄하고, 주인공이 피해자 대신 복수를 해준다는 직선적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이전 시즌을 보지 못한) 시청자들의 중간 유입도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범택시' 시리즈의 선례를 보며 첫 공개 당시 반응이 좋았던 다른 작품들도 잇달아 시즌제 제작에 도전하고 있다.

'과거에서 온 무전'을 통해 미제 사건을 해결한다는 세계관으로 '웰메이드'라는 찬사를 받았던 이제훈·김혜수·조진웅 주연의 tvN '시그널'(2016년)은 10년 만인 내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있다.

또 이혼 전문 변호사인 최유나 작가의 실제 재판 사례를 극본에 녹여 최고 시청률 17.7%를 기록한 장나라 주연의 SBS '굿파트너'(2024년)도 시즌2 제작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방영을 계획하고 있다.

평범한 치킨집을 운영하는 전설적인 협상가 신사장(한석규)이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내용의 tvN '신사장 프로젝트'(2025년)도 시즌2 제작을 논의 중이다.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매력적인 캐릭터, 탄탄한 세계관, 두터운 팬층이라는 삼박자를 모두 갖췄다는 점이다.

이들 모두 개성 강한 주인공이 매회 다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에피소드 형식의 작품들이란 점에서 시즌제 제작을 위한 스토리 확장이 더욱 용이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방송가의 추세는 방송사보다 앞서 활발하게 시즌제 드라마를 제작해 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영향이 크다.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오리지널 IP를 활용한 시즌제 드라마는 OTT 신규 구독자 유입과 충성 고객 유치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됐다.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은 팬덤이 있는 원작 웹툰과 이를 잘 구현한 컴퓨터그래픽 주인공 유미 역을 맡은 김고은의 호연 등을 바탕으로 시즌2까지 제작됐고, 현재 시즌3를 준비하고 있다. 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학교에 고립된 학생들의 사투를 그린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도 내년 공개를 목표로 시즌2를 제작 중이고, 현빈·정우성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디즈니+의 기대작 '메이드 인 코리아'는 시즌1 공개도 전에 벌써 시즌2를 확정했다.

다만 모든 시즌제 드라마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즌제 드라마는 앞서 성공했던 시즌과 비교 대상이 되면서 평가가 더 까다로워지는 사례가 많고 시즌3 이상의 장기 시리즈가 되면 스토리 확장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실제로 SBS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3의 경우 16.8%의 최고 시청률로 종영했지만 최고 27.1%를 기록한 시즌2를 넘어서지 못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나 '스위트홈' 역시 시즌3에선 다소 힘을 잃었다. 연합뉴스

스키즈 '빌보드 200' 8연속 1위

K팝 최다 기록 자체 경신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새 앨범 '두 잇'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8회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두 잇'은 앞서 7주 1위를 기록한 테일러 스위프트의 신보 '더 라이프 오브 어 쇼걸'을 제치고 '빌보드 200'에서 1위로 데뷔했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맥시던트' '파이브스타' '락스타' '에이트' '합' '카르마'에 이어 이번 '두 잇'까지 총 8장의 앨범이 연속으로 이 차트 정상에 오르는 기록을 썼다.

이들은 이로써 '빌보드 200'에서 최다 1위를 기록한 K팝 가수라는 자신들의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또한 '빌보드 200'에 처음으로 진입한 앨범을 시작으로 8장의 앨범이 연속해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것 역시 현지 가수를 통틀어 빌보드 역사상 스트레이 키즈가 유일하다.

빌보드는 "스트레이 키즈는 또한 이번 8번째 1위로 2000년 이래 이번 세기 가장 많은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한 그룹이라는 자신들의 기록도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 등 전통적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를 합산한 '앨범 유닛'으로 순위를 매긴다.

'두 잇'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29만5000장에 해당하는 앨범 유닛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앨범 판매량은 28만6000장으로 이번 주 '톱 앨범 세일즈 차트' 1위를 차지했다. SEA는 9000장이었고, TEA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빌보드는 "'두 잇'은 올해 발매 첫 주로는 7번째로 많은 앨범 유닛과 4번째로 많은 앨범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두 잇'은 스트레이 키즈가 '확신을 가지고 지금 과감하게 행동하라'는 신념을 토대로 오늘을 즐기며 새로움을 만들어 가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앨범이다.

더블 타이틀곡 '두 잇'과 '신선놀음'을 비롯해 '홀리데이' '포토북' 등 총 5곡이 수록됐다. 팀 내 프로듀싱팀 쓰리라차(방찬·창빈·한)가 전곡을 직접 만들었다.

이 가운데 '신선놀음'은 노랫말과 뮤직비디오에서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세계관을 뽐내 팬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앨범은 정규 혹은 미니앨범이 아닌 '스키즈 잇 테이프'라는 독특한 명칭을 내걸고 발매됐다.

멤버 방찬은 지난달 21일 소속사를 통해 "스트레이 키즈 음악의 다양성과 새로운 도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며 "이번에도 저희만의 스타일대로 특별하게 준비해 봤다. 새롭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장르와 메시지들을 각 곡에 담아봤다"고 소개했다.

스트레이 키즈는 올해 전 세계 35개 지역에서 56회에 걸친 자체 최대 월드투어 '도미네이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어 앙코르 콘서트를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며 데뷔 7년 만에 국내 스타디움 공연장에 입성했다.

임희윤 대중음악평론가는 "스트레이 키즈의 음악에는 '마라맛' 같은 특유의 강렬한 랩, 훅(Hook·강한 인상을 주는 후렴구), 비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 키즈. JYP엔터테인먼트

治人治世 선미디어

고전을 통해 만나는 현대인의 치인치세 해법

화제의 책
★★★
언론인 출신
인문학자의
고전 해석 통한
사회적 문제점
해법 제시

황종택 칼럼 신온고지신 시리즈 1
고전,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

334쪽 | 15,000원

황종택 칼럼 신온고지신 시리즈 2
고전, 당신의 행동을 바꾼다

336쪽 | 14,000원

황종택 칼럼 신온고지신 시리즈 3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324쪽 | 14,000원